

스미다가와와 뱃놀이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한국의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일본의 동경에는 스미다가와(隅田川)가 있다. 스미다가와는 동경도 북부에서 아라가와(荒川)라 하는 비교적 큰 강으로부터 갈라져 동경 중심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해 오다 이바가 있는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지류다. 아라가와와 동경 외곽 동쪽으로 흘러 곧바로 태평양으로 향한다.

스미다가와는 동경이 수도가 되기 전부터 내륙과 항구를 잇는 물자 수송로로 사용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심각한 오염에 몸살을 겪었다. 그러나 1980년 수퍼제방을 만들기 시작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고층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이 즐지어 있으며, 곳곳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동경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수변의 멋과 정취를 즐기고 있다.

동경만과 연결된 스미다가와에는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데 그중에서도 크루즈선보다 크기는 작는데 일본식 지붕이 달

린 유람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야카타부네(屋形船)로 일본의 전통 뱃놀이를 위한 배다. 야카타란 '집(屋) 모양(形)'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집 모양을 하고 있어 보통의 배와는 달리 지붕이 있고 마치 집안의 식당이나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는 배를 야카타부네라고 한다.

일본의 온천 지역에 단체 숙박시설이 많이 있고 그곳에 큰 연회장이 있는 이유가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카타부네도 주로 회사나 단체에서 연회를 하는 장소로 활용하거나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내부는 일반 식당처럼 꾸며져 있어 식사할 수 있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음주 가부가 가능하다. 원래 뱃놀이는 일본의 귀족들이 즐기던 것으로 배를 띄워놓고 생선을 잡아서 직접 선상에서 요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식당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선착장에서 배에 타고 정해진 코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여러 가지 요리와 음료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 한 척을 그 시간 동안 전체 전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이용에 가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통은 회사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거나 큰 프로젝트 수행 후에 포상 차원에서 특별히 제공하고 있어 일본인들도 평생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도 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카타부네가 있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야카타부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봄의 벚꽃놀이와 여름의 불꽃놀이 시즌이다. 봄에는 강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를 유유자적 지나가며 만만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매우 인기이다. 특히, 일본은 회계연도가 한국과 달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라 기업의 성과에 맞춰 벚꽃놀이 야카타부네도 인기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꽃놀이 시즌이다. 한강의 불꽃놀이 시즌에 유람선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여름 야카타부네의 인기는 쉽게 짐작이 될 것이다. 특히 스미다가와는 여름 불꽃놀이 규모가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로 불꽃놀이를 하는 날에는 야카타부네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가격도 몇 배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사라지는 은행 ATM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지난 5월 대구의 한 상가에 설치된 모 은행의 한 ATM(자동현금입출기) 부스에는 철수 예정 안내문이 부착됐다. 인근 주민들은 안내문에 철수반대 의견을 빼곡하게 적어 넣으며 ATM을 남겨달라 요청했지만, 해당 ATM 부스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에 이어 ATM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규제 폐쇄가 어려워진 영업점 대신 ATM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전국에서 3000대가 넘는 ATM이 사라졌다.

모바일 뱅킹 보급, 현금 사용량 감소, 카드 입·출금 수수료 면제 보편화 등을 이유

로 은행들의 ATM 수익은 줄었다. 그러나 기기 관리비용,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여전히 만 큼 비용 감소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ATM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ATM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1000만원 안팎이다.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연간 수 조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은행에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TM 철수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로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특히나 ATM을 통한 음성 안내를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이 낯선 고령자는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 거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

과 공간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만큼 경영 효율화는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국내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공적자금 덕분에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생색내기'에 불과해도 좋으니,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9일 (금 6월 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48년생 명에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 60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는 있다. 72년생 집단에는 리더가 필요하니 따르도록. 84년생 높은 기어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라.
- 소** 37년생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49년생 꽃은 아름다워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61년생 변화의 좋은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처신해라. 73년생 지갑을 열 줄 아는 것도. 85년생 건강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 호랑이** 38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앉으려니 마음이 불편. 50년생 자식이 재능이 많은데 지출도 많다. 62년생 상사의 뜻에 따르는 것이 부담이 적다. 74년생 무너져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저절로 멀어진다. 86년생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겨라.
- 토끼** 39년생 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적선으로 생각하라. 51년생 나보다 열 배 나은 조상님이 자랑스럽다. 6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75년생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은 들뜨고 외롭다. 87년생 부탁을 거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 염** 40년생 뱀과 내키지 않은 술자리는 피하라. 52년생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행운을 가져온다. 64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의 관심도 받는다. 7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88년생 한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보이다.
- 뱀** 41년생 격한 언쟁으로 서로가 피해만 본다. 53년생 조금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65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77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9년생 돈거래는 잘 살펴서 하자 상처가 된다.
- 말** 42년생 지나친 욕심이 복을 치는 결과. 54년생 재능으로 인해 자신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66년생 오늘은 앞을 보고 전진. 78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마음을 알릴 수가. 90년생 날씨가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니 우산을 챙겨라.
- 양** 43년생 왜 내 고집만 피우려고 하는지. 55년생 기대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 67년생 생각해봐라. 세상은 내 편이니 기죽지 말고 살자. 79년생 안 되는 일에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 91년생 희망은 내가 노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원숭이** 44년생 안부를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56년생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 정답도 없다. 68년생 동그리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80년생 속이 흰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아준다. 92년생 상대를 존중하여 자세를 낮추고 그를 대하라.
- 닭** 45년생 보통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을 해낸다. 57년생 적의 적은 동지이니 힘을 모으자. 69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81년생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게 되는 게 세상 이치. 93년생 추억의 삶 돌아갈 수 없는 연인이 그림자.
- 개** 46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즐겁다. 58년생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해라. 70년생 주변은 평온한데 혼자만 바쁘니 몸이 피곤하겠다. 82년생 오후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난다. 94년생 배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 돼지** 47년생 하루종일 집수리. 59년생 반려견은 사랑 없으면 못키우니 기본으로 데려오지 말 것. 71년생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제 재앙이 올지도. 83년생 의외의 귀인이 옆에서 도움을 준다. 95년생 동업 제안이 조심사(潮三)를 피하는 아날지.



김상회의
김상회의
도인

이치를 알면 도인이다. 초월적인 신통을 체득한 존재 신비한 경계를 체험한 이를 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매를 체험하면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경우도 생기고 전생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계일 뿐이다. 무속인들은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점신을 통해 과거의 일을 줄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통으로 말하자면 석가모니부처님이나 예수도 알려진 존재 중 최고이다. 그런데도 신통을 자주 상용하지 않았다. 왜, 진리로 가는 데 있어 일종의 부차적인 현상이나 경계 정도로 봤기 때문이고 본질인 존재의 실상이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외도를 조복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진리의 법을 설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방편적으로 필요할 때만 썼다. 오히려 전도방상을 일으키는 장애 적 측면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신통을 부리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고 계율로서 금했다. 사이비종교의 교주 중에는 어쩌다 살짝 체험한 것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권위와 재물을 탐닉한다. 진창에 빠지게 하여 삶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 나게 하며 심하게는 집단 자살 등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물의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런 일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우주여행이 가능해진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처럼 인간이 몽매할 수 있는가? 이는 왜일까. '마음' 때문이다. 인간은 감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느낌으로 인식작용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요물이라는 것이 문제다. 생각이 연이을수록 번뇌만 더해진다. 존재의 실상과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는 이가 도인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3	5	7					4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